

† 찬미예수님

11월 19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와 은총의 모든 복을 사람의 손에 맡기시어, 우리가 좋은 뜻을 세우 아버지의 섭리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돌아오실 아버지를 깨어 기다리는 충실한 종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2017년 11월 19 일 [(녹) 연중 제 33주일(평신도 주일)]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4-3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4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16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17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2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4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26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27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28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29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30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17년 11월 셋째주 공지입니다.

<지난행사>

하모니 감자탕 저녁식사 초대 (11/11 토)

지난 11일(토) 오후 6시에 사랑방에서 하모니의 단합과 친교를 위한 감자탕 저녁식사가 있었습니다. 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8명의 하모니가 모여 맛있는 식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스레 요리해주신 심승화 헬레나 자매님(뜨락 심혜란 에스텔 어머니)과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카드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하모니들, 연말연시에는 다같이 모여 행복한 시간 함께해요~

주보봉사 (11/12)

김정호 이냐시오 형제님, 감사합니다.

김세록 제랄드 형제님 점심식사 (11/12)

요아킴회 김세록 제랄드 회장님께서 (하모니 김상윤 안젤로 아버지) 뜨락/하모니를 위해 점심 식사를 사 주셨습니다. 항상 청년들을 챙겨주시는 제랄드 형제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대회 연습 (11/12)

다음 주일에 있을 연도대회를 준비하며, 하모니/뜨락회가 모여 연도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에 참여해주신 구병진, 김상윤, 홍상미, 권창모, 김정호, 전진영, 문지영, 그리고 뜨락회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

~ 오늘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좋은 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

[아름다운 날들을 만드는 말]

마음을 넓고 깊게 해 주는 말, 미안해
겸손한 인격의 덕을 쌓는 말, 고마워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아 주는 말, 잘했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말, 내가 잘못 했어
날마다 새롭게 감미롭게 하는 말, 사랑해

위령성월 연도대회 (11/19 주일)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연옥 영혼을 위한 연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연도대회가 **11/19 주일, 점심식사 후**에 있습니다. 전체가 함께 연도책 p.70-73 둘째줄까지 부르고, p.73 셋째줄(시편129)부터 각 반별로 부릅니다. **청년회 연도 부분은 p.74(첨부파일) 한 페이지로**, 한국학교+알바니 반 (p.73쪽)에 이어서 합창하면 됩니다. 짧고 어렵지 않으며, 남녀 구분없이 한 목소리로 박자에 맞춰 정성스레 부르면 되니, 지난 주일 연습하지 못한 님들도 얼마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정성스레 참여하는데 큰 의미를 둔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 (11/19 주일까지 신청)

현재 진행 중인 예비자 교리반에 다가오는 **주일(11/19)까지 예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주위의 세례받지 못한 님들께 알려주세요.

2차 헌금 (11/19 주일)

가난한 이들의 구제사업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미사 및 점심식사 (11/23 목)

11/23 목요일 미사는 *오전 11시*로 변경되며, 미사 후 함께 추수감사절 점심식사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특히 멀리있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성서모임 주관, 성당 및 뜻있는 분들의 후원으로 점심식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함께 나눌 음식/후식을 가져와도 좋고, 여의치 않으면 그냥 오셔도 환영입니다~

우편/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시청각통신성서교육

체계적인 성경공부에 관심 있으나 혼자서 힘들고, 모임에 참석할 시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성경공부 기회를 안내합니다. 신부님께서, 특히 바쁜 청년들에게 강추하신 시청각통신성서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은 원하는 과정에 신청하세요.

과정: 구약/신약입문 과정 (2년), 기타 수업도 많이 있습니다.

접수: 2018년 1월말까지

문의 및 원서: <http://uus.pauline.or.kr>

[전달] 한국 가톨릭 젊은이들을 위한 피정 (12/2 토)

박정은 소피아 수녀님의 지도아래 미혼남녀 가톨릭 신자를 위한 피정이 오는 12/2일 토요일 산호세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주제: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

초빙 강사: 박정은 소피아 수녀님

피정 대상: 미혼 남녀 가톨릭 신자

일시: 12월 2일(토) 오후 12시 ~ 오후 10시

장소: 산호세 한국 순교자 본당

참가비: \$20 (점심, 저녁 제공)

주최: 여성 위원회

문의: 이선희 크리스티나(650-619-0829)

접수: <http://bit.ly/2AmoDOB>

방문 -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산호세에서 우리 공동체/하모니를 방문한 양민지 에스더 자매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더욱 더 여유를 찾고싶은 가을,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최근 여행을 다녀 오거나, 여행중, 또는 곧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
니다.

무썸록 건강히,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기쁜, 즐거운 여행 되길 기도합니다. 가끔 하모니에 소식 전해 주세요~!

이름표

서로의 이름과 세례명을 알고 불러주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서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
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리마인더>

- ***관심 영적자료 구입***: 건기행사 후원금으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교육자료를 마련해 사랑방에 비치하고 공유하며 대여도 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영적 교육자료 제목을 회장단에게 알려주거나 링크(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5EOqoTfNLAVhxMs_avA1c7wrs_yYB18-pLCPichh74/edit?usp=sharing) 에 올려주세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 catholic@gmail.com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를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Oakland, California 94605
6226 Camden Street

4 Attachments

